

“아이들 먹거리 건들지 말았어야”

민주 신정훈 의원실, 내년 농식품부 예산 분석 결과 정부, 초등생·임산부에 농산물 지원 예산 전액 삭감 “사업 폐지될 경우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축소자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나 임산부에 국산 농산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 소비확대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는 먹거리 정책이다. 올해에는 이들 사업에 각각 72억원과 158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예산이 배정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 확정할 때 자신들이 추진한 대표적인 민생 예산에 이 두 가지 사업을 성과로 홍보했던 국민연립은 윤석열 정부의 두 가지 사업 전액 삭감에 입을 당

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민관 신축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려 했던 윤석열 정부가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라며 “아무리 전 정부 사업을 지우고 싶더라도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는 건들지 말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 사업들이 폐지될 경우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이 축소돼 농가에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와 농어민 안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김기재 도의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전북도의회 김기재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23일 오후 2시 도의회의원총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방안과 성공적 정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 전주병 지역위, 전주시와 정책협의회
지난 23일 전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성주 국회의원,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지역위원회-전주시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시장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내년도 국가 예산확보 및 도비지원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관객기사 5면>

MBC, 정치권尹 비속어 보도 지적에 ‘유감’ “대통령실 풀 기자단 촬영, 방송사들이 공유”

“언론 보도 전에 SNS 등 통해 확산... KBS 등 대부분 언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보도”

MBC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보도 비판에 유감을 표했다. MBC는 “윤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데 일부 정치권에서 비난이 있었다”며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동영상은 보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에서 유독 MBC만을 거론하면서 좌표 찍기 하듯 비난하는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23일 밝혔다. “비속어의 비속어 발언 영상은 대통령실 풀(Pool) 기자단이 촬영해 방송사들이 공유한 것”이라며 “이 영상은 언론 보도 이전에 이미 사회관계서비스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었다. KBS, SBS 등 지상파와 대부분의 언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유튜브에 클립으로 올

리거나 뉴스로 보도했다. MBC는 최대한 절제해 영상을 올렸고 어떠한 해석이나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뉴스 가치가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신속·정확하게 보도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기본 책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정부 질문 답변 자리에서 명확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가리겠습니까?”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해의 언론들 역시 자국 지도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여러가지 보도하고 있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언론이 자유를 위축하고 억눌려온 수많은 사례를 기억하고 있

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랜드 재정공약회 를 마치고 회의를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찌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MBC가 대통령이 무심코 사적으로 지나치듯 한 말을 침소봉대했다”며 “한미동맹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당파적 공격에 혈안이 된 MBC의 행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썼다. /뉴스



전북 고교생 열린 토론회 전라고 ‘갑론을박’ 팀 우승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2022 전북 고등학교 열린 토론회에서 전라고등학교 ‘갑론을박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토론회는 예산을 통과한 4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비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라는 주제로 열린 찬반토론회를 펼쳤다. 그 결과 전라고등학교 갑론을박팀(양윤성, 이진규)이 금상, 전라고등학교 마지노성팀(정현준, 이경영)이 은상, 상산고등학교 가운누리팀(이은승, 허윤서)과 전주고등학교 사교몽지팀(정현빈, 황재웅)이 동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두 팀은 11월 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고등학생 토론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국회 교육위, ‘김건희 논문’에 국민대·숙대 총장 증인 채택

유기홍 위원장, “여야 간사간 합의 요청에도 이뤄지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민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 장운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등 총 11명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의 단독 채택으로 가결했다. 여야 간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당단이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조사 관련 임홍재 국민대학교 총장, 김지용 국민대학교 이사장, 전승규 국민대학교 영산대자연과학 교수 등이 일반증인 출석요구 명단에 올랐다. 또한 장운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과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등 논문표절 검증 조사 진행 상황과 조치관련에 대한 보고를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 류철호 한국 디자인트렌드학회 회장, 이은형 인천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수의 힘으로 일반적으로 독재적으로 해도 되는거냐”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은 토론 없이 진행한다고 재차 밝히면서 임홍재 총장의 10인 2022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채택 요구의견을 상정했다. 안건은 재석 의원 12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으나 국민의 힘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태규 의원은 “갑론을박, 국회폭력”이라며 “폭력에 가까운 운영”이라고 비판하자 유 위원장은 “요새처럼 야당이 할 말이 많은 때가 없다. 야당을 과연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이렇게 돼도 좋은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정감사하고 인사청문회를 같이 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물고 가고 있는 상황이 과연 맞는지,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쳐다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기금 활용 실적 저조”

도의회 예결특위, 회계연도 전북도 결산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결산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산의 기금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 전주2)는 결산심사 2일차인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복지국, 복지여성보건의국 등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이어갔다.

진형석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사업별 이월액 최소화와 불용예산액을 추경에 감조정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실·국별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와 올해로 이전된 사업비가 차질없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완수를 위한 담당자의 책임감을 촉구했다.

권요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2)은 “전주독립영화의 집의 사업 미추진 사유를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공강 및 축소 단지의 악취 문제를 지적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1)은 도립미술관의 도내 출신 인적자, 청년작가의 전시 확대를 요청하며 젊은 작가들의 활동 무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육정호의 녹조로 인해 상수

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 및 지원으로 정읍시가 용담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제력 과감 효과를 언급하며 문화예술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 지원과, 문화유산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전라북도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집행잔액 발생과 보조금 반납은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환경복지국의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것을 지적하며, 보조금 반납액의 최소화를 주문했고 환경보전과 소관 사업의 홍보 부족이 보인다며 담당부서의 대안을 요청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전북도의 성령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집행계획을 확인하며, 조성에 비해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고 아이디어 사업 공모 등 다양한 사업 발굴과 기금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의회 예결위, 추경 예산안 40억원 삭감

28일 본회의 상정 처리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난 23일 집행부가 제출한 2670억원 규모의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예결위는 지난 20일부터 4일간의 심사 활동을 통해 총 6건의 사업 예산 중 40억원 가량을 감액해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을 오는 28일 제35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상정에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사업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 등 6개 사업으로 삭감액은 40억8,064만원이다. 먼저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은 추경 5000만 원, 6억2,800만 원 중 실시계획에 필요한 용역비 7,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업을 부지매입 후 심도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전북임업진흥원사정리 및 학술출처 간행사업은 전북도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을 전부 삭감했다.

추경 장동에 조성 예정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은 사업이 부지매입 단계에도 추경에 공사비까지 추가돼 있음을 지적하고, 요구

액 30억원 중 10억원을 삭감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은 광역(시의)버스는 관리 권한이 있는 전북도에서 지원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5000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하수관리BTL사업운영 민간위탁금과 신도시가게 감병역 방관리사업도 요구한 예산 일부가 삭감 조치됐다.

예결위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에 필요한 야구장 철거에 대해 “야구장을 철거하면서 바로 부지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 공원시설물과 시설 유지 관리에 1억5,000만 원을 증액할 것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철거한 정산과 함께 문제점 발생 시 적극 환수 조치하라는 권고사항도 내놓았다.

최후만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올해 2회 추경안 심사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 속에 어느 해보다 면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정읍시의원들, 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활발’

도로 도색정책 개선책

폐의약품 수집장소 현황

조직개편 방안 등 질문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23일 제 2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회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 질문을 펼쳤다.

이만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폭 좁은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봉 철거 계획 △교통신호를 초래하는 도로 도색 정책 개선방안 △도로의 맨홀 소음 해소 대책 △교통신호를 활용한 교통정책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서향경 의원은 △약국, 보건소 외에 폐의약품의 수거함 및 수집장소 현황 △보건의소의 폐의약품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 관리체계 △시민과 약국 대상 폐의약품, 불용의약품 배출에 대한 홍보내용 및 3개년 홍보자료 등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도형 의원은 △공직 풍토 개선 방향과 조직개편 방안 △복합다량한 출산장려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시민 홍보 방안 △경로당 공기청정기 및 정수기 관리실태 등 △아파트 건축 허가, 도시계획 재정비 내역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피해 현장 복구 현황 △야생동물 출몰 예방 방안 등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청취하였다.

이후 27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재) 심사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 속에 어느 해보다 면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